

하나금융투자 '하나 THE ONE AI²랩' 인공지능으로 투자 효율성 극대화



하나금융투자(대표이사 이진국)는 인공지능(AI)을 글로벌 자산 배분에 적용해 투자하는 '하나 THE ONE AI²랩'(하나 더 원 에이 아이스퀘어랩)을 적극 추천했다.

'하나 THE ONE AI²랩'은 미국 등 글로벌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채권(ETN), 환매조건부 채권(RP), 현금성 자산을 활용해 글로벌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이다. 인공지능이 리스크와 수익률을 분석해 손님이 추구하는 수익률에 따라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이 상품은 기대 수익률에 따라 손님이 4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채권 비중이 가장 높은 'S 스타일'(Safe), 채권과 주식 비중이 비슷한 'M 스타일'(Moderate), 주식 비중을 높인 'A 스타일'(Aggressive), 레버리지 ETF를 이용하는 'L 스타일'(Leverage)이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매크로 변수들을 기초로 17년간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들을 분석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다. 이 모델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산 배분에 적용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권창진 랩은용실장은 "투자의 패러다임이 데이터 기반의 머신

러닝과 인공지능 기반 투자로 변했다"며 "하나 THE ONE AI²랩은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참여해 만든 상품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운용하고 손님들이 각자 성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도록 4가지로 출시했다"고 말했다.

'하나 THE ONE AI²랩'은 1천만원 이상 가입이 가능하고 추가입·출금이 가능하다. 추가 입금 최소 금액은 1천만원이며, 최저 가입 금액을 밑돌지 않는 범위에서 현금으로 일부 출금이 가능하다. 가입 시 원화 또는 투자 대상국의 통화로 납입해야 하며, 가입금액의 연 1.0%가 매 분기 수수료로 후취 부과된다.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연 단위 자동연장이 가능하고, 손님이 원하면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세금은 해외주식 매매와 배당에 따른 과세 체계를 따른다. 별도의 환 헤지를 하지 않아 환에 노출된 만큼 투자할 때 환율을 고려해야 한다. 고객 계좌별로 운용, 관리되는 투자일임 계약으로,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❶